

36.5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CONTINEW는 (주) 모어덴의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로써, 자동차 생산과정 및 폐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가죽, 에어백, 안전벨트를 재사용하여 가방 및 액세서리 제품을 제작합니다.

CONTINEW upcycles leather seat covers and airbag from car interiors into new products such as bags and small leather goods.

가방이
된
자동차

가방이 된 자동차

continew



컨티뉴로 높이는 일상의 품격

비싸다고 하여, 유명하다고 하여
명품이 아니다.
뜻깊은 이야기와 만든 사람의 정성이
담겼다면, 명품으로 빛이 난다.
모어댄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명품을 늘러가기를
바라본다.

• 2017년 9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모어댄의 브랜드 컨티뉴



“왔어?”

손을 펴고 상대를 향해 펼쳐 보인다. 반가움을 표시하는 의미로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 더욱 좋다. 평소 이웃을 맞이할 때 연습하고,
수어 소통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Good!

• 사회적기업 <열린책장>과 함께 배우는 수어교실은 p4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ways with you 모어댄

끝에서 시작된 새로움, 삶을 더욱 풍요롭게

Issue in 청년의 외침에 사회적기업이 답하다

- 18 ◦ **Essay** 종이컵에 담은 시간 소설가 김성중
- 20 ◦ **人Taboo** 함께의 꿈을 키우는 동네, 그리고 청년 동네방네협동조합
- 24 ◦ **Zoom in** 청년이여, 꿈을 꾸어라!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최재호 부장
- 26 ◦ **Global report** 청년실업 문제? 사회적경제에서 답 찾는다!

Vision up 사회적기업의 좋은 친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30 ◦ **Cheer up** 건강한 잼이 우리가족의 식탁 위로, 향미원
- 34 ◦ **K씨의 하루**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삼시세끼
- 38 ◦ **Great choice**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 42 ◦ **News**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년 사업설명회 개최 외
- 46 ◦ **36.5 Hot lin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
- 48 ◦ **배워봅시다** 손으로 나눈 따뜻한 소통
- 50 ◦ **독자 Box**

발행일 2018년 3월 31일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8층
T. 031-697-7700 F. 031-697-7853 H. www.socialenterprise.or.kr

기획·취재·디자인 ㈜위크디자인 T. 02-332-7961~2 인쇄 ㈜연각P&D T. 02-2285-3388

본지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끝에서 시작된 새로움

삶을 더욱
풍요롭게

이상할 만큼 이상적인 생각이 현실이 됐다. 폐 자동차의 가죽시트가 가방·지갑 등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속가능한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얻게 된 이름 'Continew'. 컨티뉴와 함께라면 조금은 고단하고 평범한 우리 일상에도 지속가능한 희망이 피어날 것만 같다. 글 | 기사윤 사진 | 박성희



가족의 운명

알록달록 색깔을 입은 가족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운명을 맞이한다. 조악한 가방·지갑으로 얼마간의 쓰임이 끝나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와 같은 가족의 탄생은 이 땅을 점점 병들어 가게 할 것이다.



끝에서 찾는 명품

자동차 시트에 석우는 가족은 명품 브랜드가 사용하는 가족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악조건을 견디며 4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모어덴은 40년 이상, 평생 곁에 두고 싶은 명품을 만들고 싶다.



수작업으로 완성된 가방

가족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악취 및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씻고 말리는 과정이 먼저다. 이후 특수 열처리 코팅을 입히고 가족을 색상과 크기별로 분류한다. 광택 등 마무리 작업까지 끝내면 장인의 수작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그냥 버려질 뻔했던 폐차 가족은 새 가방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속가능한 새로움

Continue + New! 컨티뉴(Continew)의 탄생이다. 모어덴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컨티뉴는 자동차 생산 과정과 폐 자동차에서 수거한 천연가족, 안전벨트 및 에어백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Up-cycling DNA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재활용플라자'는 국내 최대 업사이클링(Up-cycling) 문화공간이다. 이곳에서 유독 빛이 나는 것은 모어댄 컨티뉴 부스. 그들의 Up-cycling DNA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널리 퍼져 가고 있으니까.



사장이 인정한 경쟁력

2017년 9월 고양 스타필드에 컨티뉴가 입점했다. 국내 내로라하는 브랜드 사이에서 당당히 어깨를 견주고 있는 컨티뉴. 고양 스타필드도 입점은 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넘어 제품만으로도 경쟁력을 입증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모어댄'이라는 자부심

모어댄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채용하고 있다. 사회적약자 채용은 모어댄이 더 큰 성장을 거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가치이다.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모어댄은, 그 이름 자체로 구성원의 자부심이 된다.



컨티뉴만의 무늬

자투리 가죽을 잇대어 만들어야 하는 재료의 한계는 컨티뉴의 독특한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마주 닿는 가죽들의 직선들은 머지않아 컨티뉴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로 각인 될 것이다.

End is new! 너머의 이상을 찾아서, 모어댄

버려져 가는 물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사회적기업 '모어댄(MORETHAN)'의 경영철학이다. 지속을 뜻하는 'Continue'와 새로움을 뜻하는 'New'를 합성한 브랜드 '컨티뉴(Continew)'에는 이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1 왼쪽부터 장영미 주임, 최이현 대표, 한이화 팀장, 강동현 과장, 이준식 사원.

ALWAYS WITH YOU ○ 모어댄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가방이 된 자동차, 상상 이상이 된 모어댄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가죽·에어백·안전벨트는 연간 400만 톤에 이르며, 이를 처리하는 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모어댄은 폐 자동차에서 수거한 가죽시트와 에어백 등을 이용해 가방과 지갑 등의 패션용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으로, 자동차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가죽을 이용해 패션용품을 만들고 있지만 도축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동물복지도 실현하고 있다.

폐 자동차 가죽시트로 가방을 만들겠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킨 것은 모어댄밖에 없다.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반짝였는지 궁금하다.

“영국 유학시절 아끼는 차를 뺑소니 사고로 폐차시켜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산 중고 미니였는데, 그나마 형체가 온전한 시트만 떼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제 생애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는 데 미니를 그대로 보내기 싫었던 거죠.”

지인들이 최이현 대표에게 건넨 한 마디. “가죽 참 좋다”, “인테리어 감각 있네”, “소파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당시에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자동차 업체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주제로 한 석사논문을 준비하면서 미니의 가죽이 떠올랐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 이제 머릿속 가득한 아이디어를 풀어낼 차례였다.

완제품을 향한 시행착오, 꿈이 있어 견딜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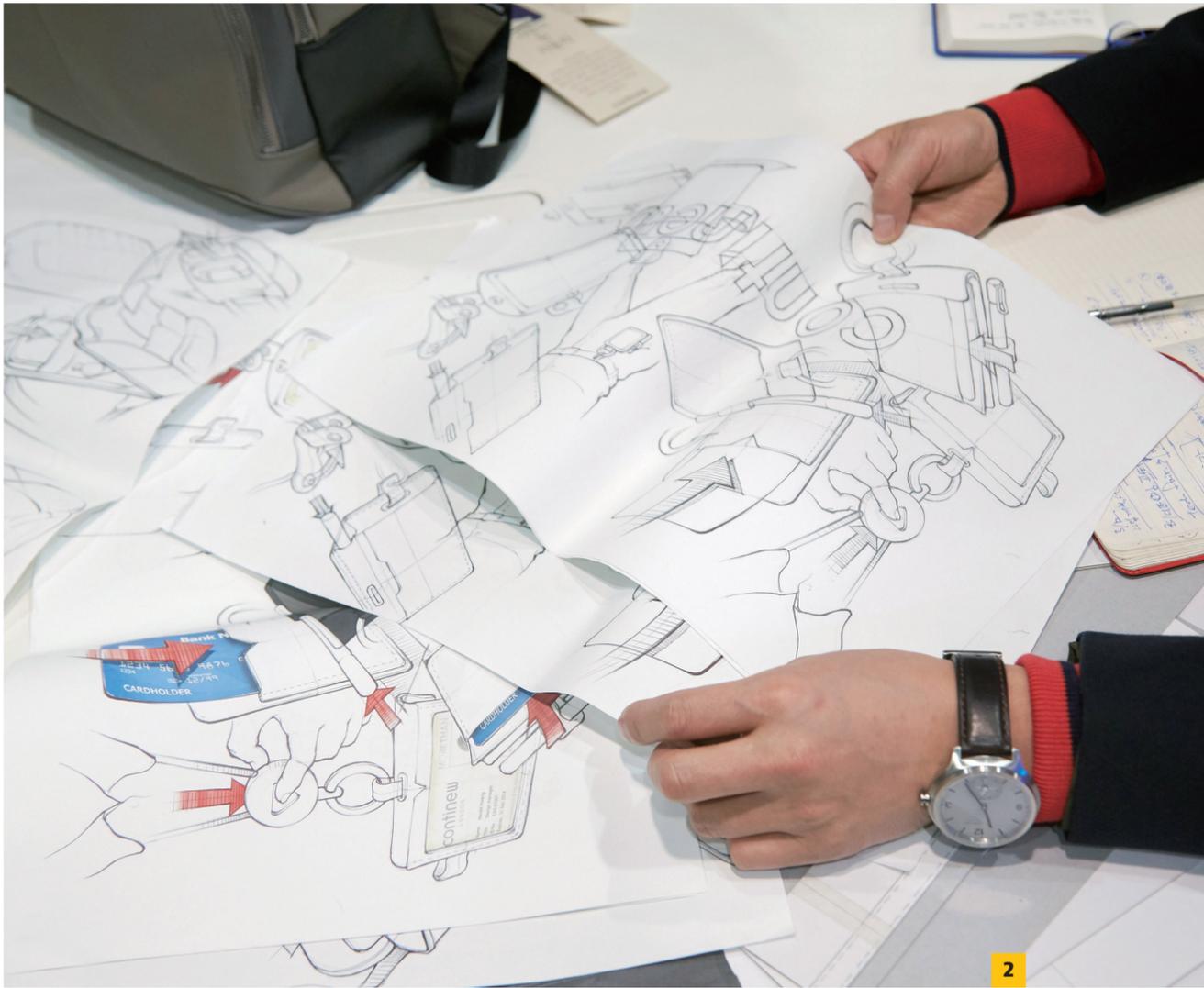
자동차 시트에 씌우는 가죽은 명품 브랜드가 사용하는 가죽보다 단가가 훨씬 높다. 여름의 고온과 습기, 겨울의 냉기, 수많은 마찰을 견디면서 40년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차가 되면 이 가죽들은 전부 매립되는 운명에 처해진다.

“뒷좌석이나 등 부분은 새 가죽처럼 멀쩡한데도 그냥 버려지죠. 자동차 매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개발되었지만 이 문제는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죠.”

2013년 봄 한국에 돌아온 최이현 대표는 곧바로 동대문시장의 가방 제조업체와 폐차장 수백 군데를 찾아다녔다. 몇 십 년 가방을 만들어온 장인들을 확보하게 됐고, 폐차의 가죽을 공급해주기로 한 폐차장도 만나게 됐다. 드디어 2015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모어댄’을 설립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어요. 특히 냄새 제거가 중요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담배 냄새는 물론 방향제 냄새, 자동차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환경을 오염하는 화학세제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천연세제에만 물빨래를 하였습니다. 또 바삭 말리느냐 덜 말리느냐에 따라 가죽 형태도 제각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느냐는 물음에 최이현 대표는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저희에게는 꿈이 있잖아요?”고 되묻는다. 당장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2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편의·기능이 고려된 컨티뉴 가방.

이제는 자부심이 된 이름, 모어댄·컨티뉴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육성팀 선정, 아시아소셜벤처대회 대상, KPU 창업경진대회 대상, 창업오디션 프로그램 '도전! K-스타트업 2016' 우수상 수상, 세계소셜벤처대회 결승 진출.

모어댄의 화려한 이력은 비전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다. 대기업 입사 기회도 마다한 창립 멤버 강동현 과장은 “지금 당장 다니기 편한 회사보다 5년 뒤, 그 이후의 미래가 보장된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한다. 2017년 12월 입사한 이준식 사원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주목받을 때 가슴 뿌듯합니다.”고 말한다.

올해 1월 입사한 한이화 팀장은 적극적인 구애로 모어댄의 구성원이 됐다. 수년간 명품브랜드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폐차 가죽으로 명품을 만들겠다는 모어댄이 흥미로웠어요. 실제 제품들의 상품성도 높았고요. 대표 이메일로 입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해 모어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직 규모가 작다보니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기도 하고, 하던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즐거운 이유는 ‘모어댄’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자부심 덕분 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

모어댄의 사회적가치가 알려지면서 원료가 다양해졌다. 완성차 업체와 연구기관들이 자투리 가죽, 폐 가죽시트를 모어댄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자투리 가죽을 잇대어 만들어야 하는 재료의 한계는 컨티뉴의 독특한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제품은 2~3만 원대의 카드지갑과 쇼퍼백, 10~30만 원대의 백팩과 토트백 등 다양하다. 2016년 9월 정식 출시한 후 웹사이트뿐 아니라 교보문고와 핫트랙스와 백화점 등 11군데에서 숏인숍 형태로 판매하고 있고, 2017년 9월에는 고양 스타필드에 입점했다. 최근 한 아이돌 그룹 멤버 SNS에 컨티뉴 가방 착용 사진이 올라오면서, 그 인기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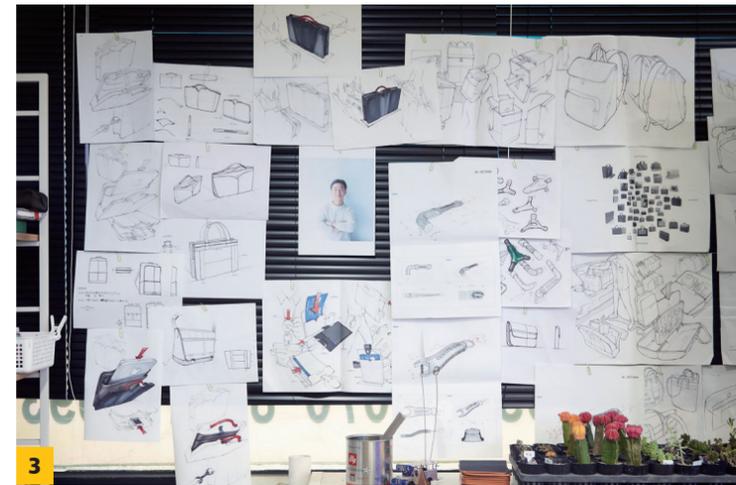
“주문이 밀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적기업’이라는 비전을 상기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최이현 대표의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컨티뉴 제품을 사용하는 것. 실제 그 꿈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통해 15개국의 사람들이 구매했고, 바이어들을 통해 프랑스·독일·룩셈부르크·그리스·스페인·영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찾아봤어요. 페비닐로 가방을 만드는 프라이탁은 그 중 하나죠.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저희를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가 성장해 갈수록 모어댄이 추구해 온 사회적가치는 꼭 지킬 것이라는 최이현 대표. 글로벌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모어댄의 미래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3 제품 디자인 시안에서 모어댄이 쏟은 열정의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다.
- 4 머지않아 글로벌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최이현 대표.
- 5 ‘모어댄’이라는 이름에서 가슴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구성원들. 회의시간도 즐겁다.



컨티뉴를 만날 수 있는 곳

최근 국내 최정상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리더 랩몬스터가 컨티뉴의 '엘카 백팩'을 착용해 화제가 됐다. '랩몬스터 백팩'이라 불리며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인터넷 주문 후 기다리는 시간이 애탈 것 같다면 직접 매장을 찾아볼 것. 엘카 백팩뿐 아니라 다양한 백팩과 지갑·소품이 시선을 빼앗을지 모른다.

1 컨티뉴 홈페이지

인기 제품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 및 배송기간은 제품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참고할 것.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 가족사이트로 맞춤형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다.

- <http://wecontinew.co.kr>
- contact@morethan.co.kr



2 고양 스타필드 직영점

컨티뉴의 모든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장 많은 수량과 제품이 확보된 곳으로, 인터넷상 주문이 밀려 있다면 고양 스타필드 직영점을 방문하자. 내로라하는 유명 브랜드 사이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컨티뉴 매장이 인상 깊다.

- 경기도 덕양구 고양대로 1955 스타필드 2층
- 031-5173-2056



3 마켓인유 스텝인숍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망원동에 위치. 망원역 1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면 '마켓인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컨티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기업·중소기업 제품들을 살펴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4길 33
- 070-7325-4415

4 서울역 디트렉스 스텝인숍

설레는 여행길, 긴장되는 출장길, 잠시 서울역 디트렉스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여행에 또 다른 추억을 더해줄 파우치, 출장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명함 지갑을 만날 수 있다.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역 2층
- 02-363-9951



엘카 백팩 ▶

일상을 풍요롭게 Up-Cycling DNA

수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원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과 콘셉트로 우리 일상에 재미와 풍요를 더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 모여 댄과 비슷하지만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만나보자.



협동조합온리 버려지는 종이에 생명을 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파쇄종이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카드로 변신시키는 곳. 온리가 제작한 카드에 살짝 물을 적시면 새싹들이 봄처럼 피어난다. 한지 제작방식과 수경재배기술의 접목된 것으로, 온리의 아이디어가 놀랍기만 하다. 올봄 온리 카드에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가득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 <http://cooponre.com>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25 3층
- 063-282-0028



터치포굿 버려지는 것들에 특별한 이야기를

터치포굿은 현수막 및 광고판 등 짧게 쓰이고 버려지는 자원들을 재활용하여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 곳이다. 가방, 신발, 액세서리까지 제품이 다양하며, 각 제품에는 그만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실시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5%는 환경성 피부질환 아동의 습관개선을 위해 쓰인다.

- <http://www.touch4good.com>
- 서울 마포구 대흥로 80-34 2층
- 02-6349-9006

청년의 외침에 사회적기업이 답하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은 일자리다. 지난해 연간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100만 명을 훌쩍 넘은 실업인구 중 청년실업자만 42만1,000명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청년고용, 청년창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청년들과 나누고 있다.

ISSUE Info

대한민국 청년실업

실업자 126만5,000명
 청년실업자 42만1,000명
 구직활동 없이 '쉬는' 청년 35만1,000명

2013~2018
 청년 실업률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2월 9.8%

<자료: 통계청>

2018 실업률
 (2월 기준)

실업률 4.6%
 청년실업률 9.8%
 청년체감실업률 22.8%

2017
 실업인구

청년
 고용

지난 8년 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청년고용
 6,000여 명(창업팀 고용의 70%)

- 사회적기업 발굴 시 청년 등 일자리 창출 효과 고려
-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 권장

청년
 창업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확대(500팀→550팀),
 창업 이후 성장 지원 강화

-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 청년 사회적기업가 창업 지원
- 창업 관련 자금 및 멘토링 등 서비스 지원
- 창업 이후 사업공간, 네트워크 활동 등 지원

청년일자리
 연계

- 사회적기업과 우수 인재 연결 지원
- 취업 훈련, 직업 정보 등 제공

청년일자리와 사회적기업

CHECK Info

종이컵에 담은 시간

지금으로부터 십년 전 저는 열떨떨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신춘문에 당선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당시의 저답게 의심병이 잔뜩 도졌는데, 간단한 통화로 지망생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이 좋아 지망생 이지 습작도 없어서 손에 쥔 소설은 달랑 한편, 투고작 한편 밖에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취소 전화가 걸려오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오랫동안 저의 공식적인 신분은 '자유기고가'였습니다. 자유롭게 기고할 곳은 알다시피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료 십만 원이 넘을까 말까한 일거리가 한 달에 두어 개 있을까 말까한 나날이었죠. 두 개의 일 사이에 시간을 빨랫줄처럼 붙들어놓고 헛된 공상만 줄줄이 넣어놓곤 했습니다. 졸업 이후의 날들이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생활이 지리멸렬하다보니 꿈꾸는 것이 주요 일과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그때처럼 다채롭고 생생한 꿈들을 누빈 밤들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밤'이라고 부른 시간은 사실 오전 여덟시 이후라서 '아침'이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백수들의 취침 시계는 대체로 한 시간 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동이 뜬 후에야 잠을 청하곤 했지요. 저는 아침 해를 무지하게 미워했는데, 한심한 제 꼬락서니를 살살이 비춘 다음에야 정오를 향해 올라가곤 했으니까요. 안방에서는 출근하는 엄마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는 누워서 듣는 엄마의 출근 소리가 아닌 그걸 듣고만 있습니다. 누운 채 떠나려가고 싶은 기분이 들 수밖에요.

어제가 끝나지 않은 저는 지쳐서 마침내 잠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벌로 나누어진 꿈의 망토가 지친 어깨를 차례로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경비행기로 날아간 적도 있고, 사막에서 검은 카누를 탄 적도 있습니다. 중국인지 몽골인지 알 수 없는 대륙의 단층 깊숙이 들어간 적도 있고 심지어 토성에서 길동무로부터 버림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 꿈 속의 일입니다.

통장이 비어갈수록 꿈 속 여행은 더욱 먼 곳으로, 더욱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변해갔습니다. 나중에는 잠드는 게 기대가 될 정도로. 지금 헤아려보면 뭔가를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의 꿈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환상적인 꿈들은 무엇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던 것일까요? 자괴감, 슬픔, 재생산되지 않는 어제에서 오늘 사이로 건너가는 이들이 겪는 무력한 감정들... 바뀌는 것이라고는 오직 꿈밖에 없는 나날. 꿈은 필사적으로 절망과 우울에서 제 신경을 분산시켰지요.

한번은 꿈에 어린 시절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어릴 적 모습 그대로인데 눈을 깜박일 때마다 뭔가가 어른어른하는 겁니다. 잘 보니 코카콜라 로고였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눈을 깜박일 때마다 광고가 지나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애는 왜 이리 눈을 깜박거리는 거야?'라는 생각을 한 순간, 친구의 두 눈이 슬롯머신처럼 돌아가며 광고가 소용돌이쳤습니다. 희한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음 소설에서 이 장면을 써야겠어요. 지금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이네요. 여하튼 자세히 보려고 눈을 부릅뜬 순간 저는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다급히 필기구를 찾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들여다보던 광경을 재빨리 글자로 바꿔놓으려고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날아가고 결론만 이런 식으로 나왔지요.

'꿈 이미지는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각성에 가까워져 깨어난다.' '이미지를 단어로 바꾸려는 순간 대부분 날아가 버린다.' '이제부터 꿈 일기라도 써야겠다.' 그 후 머리맡에 노트와 펜을 놓고 잠드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멋진 꿈들이 멋진 소설로 이어졌고, 꿈꾸는 것은 여전히 저의 주요 일과입니다... 라고 이 글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꿈 일기에서 소설의 소재를 길어온 일은 거의 없습니다. 꿈 일기는 조금 쓰다 말았고 소설을 쓰는 건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은 저에게 소중한입니다. '글만 쓰지 않은 사실상의 습작기'라고 제 나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저는 '응결'되고 있었으니까요. 세상과 연결되지 않아 비참했지만 저의 본질이라고 할 세계는 뿌영기만 한 연기상태에서 최소한 눈에 보이는 물방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종이 위에서 고였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컵이자 단편 소설을 완성했을 때, 마침내 소설을 쓸 줄 알게 된 저 자신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첫 소설 이후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야기 자체는 줄줄이 나오더군요.

'세상과 연결되지 않은 무력한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처럼 '시간 대비 의미 산출'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그런 셈속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자신의 알맹이를 잘 모릅니다. 주의 깊게 자기를 관찰할 기회, 내 감정의 극단을 골고루 짚어볼 기회, 심지어 어리석어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나라는 내면이 안개에서 물방울로 응결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몽상의 빨래는 마르는 날이 오고, 태양은 정오를 향해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불안은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니까 '종이컵'에 담은 그 시간을, 여러분은 무슨 컵에 담으시겠어요?

글 **김성중**
소설가

2008년 중앙신인문학상에 단편소설 <내 의자를 돌려주세요>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2011년 <개그맨>, 2015년 <국경시장> 등을 펴냈다. 매 작품마다 개성적인 상상력과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으며, 2012년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2018년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36.5

함께의 꿈을 키우는 동네, 그리고 청년

동네방네협동조합

청년 창업이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들의 도전 열기는 뜨겁다. 춘천 지역 청년들이 모여 만든 동네방네협동조합 또한 비슷한 청년 창업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주요 관심 분야는 청년과 지역. 지역의 고민을 풀기 위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다 보니 협동조합은 어느새 청년들의 사업이 됐고, 청년들의 일터가 됐다. 동네방네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삶, 고민을 들어보자. 글 | 박웅기, 사진 | 박성희

1 봄엔게스트하우스는 춘천 (구)터미널 인근 여관촌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인근 여관 20~30%는 현재 폐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SSUE IN ○ 사람TABOO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36.5

지역의 변화를 위해 모인 청년들

동네방네협동조합의 청년들은 '지역'의 변화를 꿈꾼다. 주요 관심지역은 춘천에서 구도심으로 꼽히는 근화동 일대다.

근화동은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했던 지역이다. 춘천을 찾는 여행객이 처음 들어서는 입구이자 마지막으로 머무는 출구와도 같았다. 여관과 지역 상권은 자연스럽게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2002년 터미널이 이전해 나가면서 근화동을 찾는 발길은 줄어들었다. 여관들은 문을 닫거나 건설노동자 월셋방으로 바뀌었고, 상권도 흔들렸다.

201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기 출신인 동네방네협동조합은 그런 근화동에 다시 여행자의 발길을 돌리려 하고 있다. 조한솔 대표는 그 중심 플랫폼으로 봄엔게스트하우스를 꼽는다.

"2013년 폐업한 여인숙을 임대한 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리모델링 시공작업을 했죠. 현재 연간 약 4,000여 명의 여행자들이 봄엔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춘천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여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면, 연간 약 1만 명 정도가 근화동을 찾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전과 실험은 곧 성장의 과정

그동안 동네방네협동조합은 청년들의 실험실이였다. '임금공동체'에 가까운 청년들의 협동조합은 봄엔게스트하우스 운영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지역의 문제, 고민들을 풀어내는 여러 차례의 실험이었다.

"2015년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청년 축제를 응모해 1개월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축제공간을 만들었고, 지역의 청년 음악가들은 공연 무대를 채웠습니다. 축제에 대한 반응과 평가가 좋아 이후에는 청년 축제가 매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를 비롯해 카페, 구도심투어·춘천투어 등 공정여행 프로젝트, 봄엔게스트하우스 연계 지역상권 쿠폰 발급, 봄엔게스트하우스와 사회적기업의 협업 모델 개발 등이 일정한 성과를 남겼다. 최근에는 문화올림픽으로 추진된 평창올림픽에서 문화지원봉사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조한솔 대표는 다양한 실험들을 경험하면서 동네방네협동조합 청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고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새로 협동조합으로 들어오고, 다시 꿈을 찾아 동네방네협동조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 2 봄엔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담당하는 김윤환 조합원(좌)과 동네방네협동조합 조한솔 대표(우). 김윤환 조합원은 한림대 교직원 출신으로 지난해부터 동네방네협동조합과 함께하고 있다.
- 3 봄엔게스트하우스 내부. 주방에서는 주스, 식빵, 계란, 잼 등을 추가 요금 없이 셀프 이용할 수 있다.
- 4 객실에는 아담한 사이즈의 2층 침대가 배치돼 있다. 시트 등의 세탁은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썬벨라터에 정기적으로 의뢰하고 있다.
- 5 여행자들이 남긴 쪽지들. 여행자의 대부분은 20대 청년층이다. 워크숍 등 회사 및 단체 숙소로도 인기가 많다.



2

청년 창업가에게 필요한 건 '중간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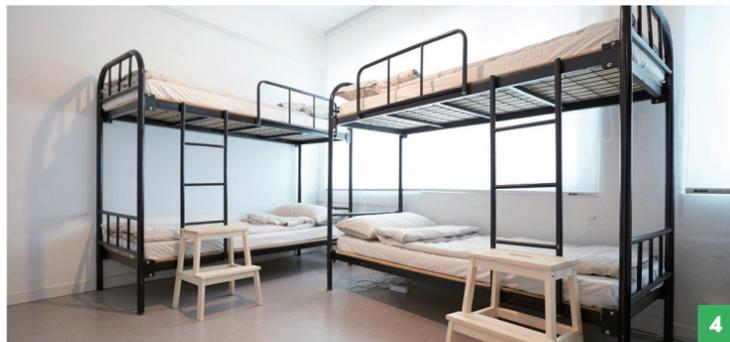
이러한 시간 동안 동네방네협동조합은 자연스럽게 '청년 협동조합'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실제로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고민한 조한솔 대표는 물론, 이후 결합한 다양한 조합원 대부분은 청년이다. 1기 육성사업 이후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며 협동조합으로 성장해온 셈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도전 곁에는 실패라는 위험이 늘 지척에 있었다.

"주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말리는 편입니다. 아이디어만 있다고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리스크가 큼니다. 몇 년 도전하다가 실패한 뒤 취업시장으로 돌아가면 때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른바 '중간지대', 충분히 사업 아이템이 될 만한 것인지 실험해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단 창업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조한솔 대표는 창업의 길로 들어선 청년들이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창업을 취업의 수단으로 보고 가볍게 접근하거나, 사업 아이디어가 빈약한 경우, 아이디어는 좋지만 사업에 소질이 없는 경우 등 형태도 다양했다. 정책 변화 등으로 창업 환경이 좋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덩달아 창업 실패 사례도 늘고 있다.



3



4



5



동네방네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춘천 봄엔게스트하우스



A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69
 T 070-7527-5401
 H <https://bomn.modoo.at>

○ 객실 이용요금

인실	2인실	6인실 / 도미토리
일~목	45,000원	20,000원
금/토	50,000원	22,000원
비고	1인 추가 시 15,000원	6인실 : 여성전용 8인실 : 남성전용

- 체크인 오후 3시~오후 10시 (10시 이후 체크인은 전화문의)
- 체크아웃 오전 10시
- 객실별 개별 욕실, 화장실이 있으며, 수건, 드라이어, 샴푸, 바디클렌저, 치약 등 비치

청년, 그 너머를 준비하는 시기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조한솔 대표와 동네방네협동조합 또한 자유롭지만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스로 '청년'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경계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몇 년은 실험의 과정이었지만, 앞으로는 동네방네협동조합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청년으로서의 동네방네협동조합은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성장하고 나이도 들고, 현실적으로 수익성도 더 높아야 할 때입니다." 조한솔 대표는 2018년을 동네방네협동조합의 변곡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다양한 사업과 활동은 조금 줄이고, 원래 목표였던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에 좀 더 무게를 두기로 가닥도 잡았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 지난 몇 년의 활동을 지켜본 여관 측에서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네방네협동조합은 여관 측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봄엔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성공 사례를 늘려갈 계획이다.

청년이여, 꿈을 꾸어라!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최재호 부장

현대자동차그룹은 2012년부터 'H-온드림 오디션'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H-온드림 오디션 중심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지켜본 사회문화팀 최재호 부장, 그로부터 청년의 꿈과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 기사윤, 사진 | 박성희



Q H-온드림 오디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H-온드림 오디션은 청년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주최하며 연간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오디션을 통해 매년 30개 팀을 선정해 시장 진입이 즉시 가능한 사업에는 사업화지원금을, 성장 가능성이 제고되는 사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재정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디션에 지원하는 팀은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이 어느 정도 발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3년차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오디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A H-온드림 오디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사회문제를 얼마나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죠. 또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과 이를 실현할 역량을 살펴봅니다. 순간의 퍼포먼스 혹은 순발력이 결과를 좌우할지도 모를 오디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층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Q H-온드림 오디션을 기획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H-온드림 오디션 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장병을 대상으로 청년의 꿈과 미래, 고민을 상담하는 토크콘서트 '군인의 품격', 연극·뮤지컬·공연 예술 전공 청년들에게 무대에 오를 기회를 제공하는 'H-스타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세대가 안정적 기반을 쌓아야 기업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까닭이죠.



2017 H-온드림 오디션 ▲

Q 부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청년을 보셨을 텐데요, 인상 깊은 청년이 있다면요?

A 현대차에서 근무하다가 사회적기업 케오에이를 만든 유동주 대표입니다. 몽골, 동남아시아 등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캐시미어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 대기업에서 충족하지 못한 본인의 열정과 꿈을 사회적기업을 통해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새로운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Q 오디션 지원 청년 및 그룹 내 청년은 포부가 가득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반면 많은 것을 포기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저 또한 청년시절을 견디고 돌아보니, 그 시절 다양한 경험이 삶의 자양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취업 전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소위 막노동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병행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실이 청년들에게 더욱 녹록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잘 될 테니 포부를 가지라는 말도 못하겠고요. 하지만 어려운 것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성취감을 느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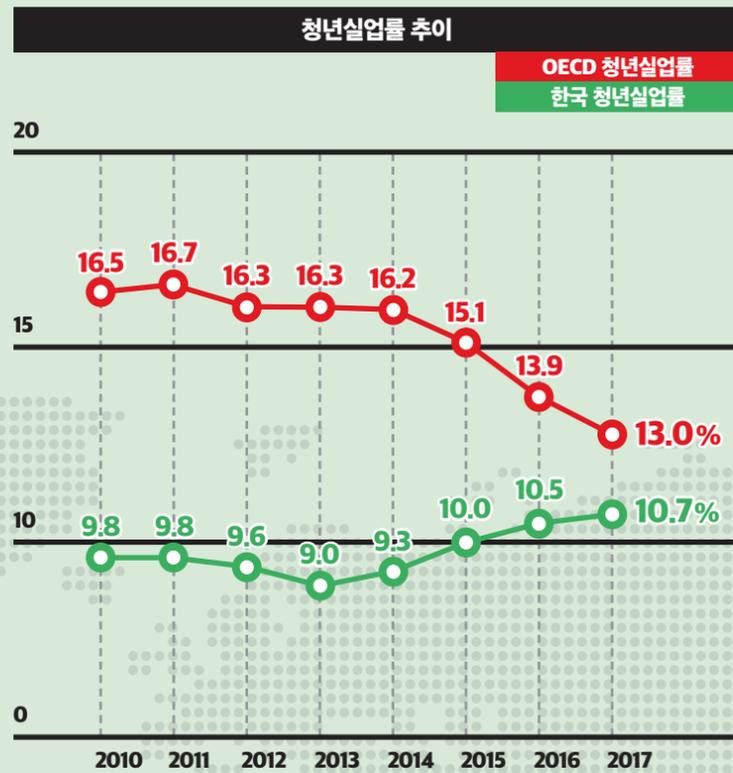
Q 오디션 담당자로서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팀을 부탁드립니다.

A H-온드림 오디션 참가 시에는 오디션 이후의 단계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H-온드림 오디션도 매우 좋은 플랫폼이지만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과 지원 혜택들을 잘 살펴보셔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의 꿈을 펼쳐보세요. 예전처럼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때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청년실업 문제? 사회적경제에서 답 찾는다!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만의 고민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15~24세)은 지난해 12.0%를 기록했다. 그런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0년 16.7%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온도 차이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조직이 등장해 2000년대에 진입하며 경제활동의 큰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15년 기준 유럽 2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총 280만 개에 달하고, 이들에 의한 고용창출 규모는 1,300만 명이 넘는다.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글 | 편집실



청년실업 답은 청년창업

호주의 청년실업은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2016년 청년실업률은 13.1%에 달했는데 최근 수년간 꾸준히 12%를 기록 중이다. 멜버른, 시드니 등 대도시의 청년실업률이 특히 높으며 세대 간에는 일자리 갈등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의 대안은 청년창업이다. 호주는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G20 국가 중 청년창업자금 지원 5위, 기업가 정신 문화 5위, 교육훈련 2위 등을 기록 중이다. 꾸준한 정책은 일정한 효과를 얻었다. 청년세대(15~24세) 창업비율은 2007년 3%에서 2011년 6%로 늘었다. 호주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들은 2033년까지 5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전망이다.(StartupAUS)

청년창업 중에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4년 호주의 사회적기업은 대략 2만여 개이며 약 73%의 기업이 최소 5년 이상, 62%가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호주 사회적기업의 청년고용 비율은 18.1%에 달한다. 또한 교육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많은 편인데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이 21.2%,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13.5%다.(Social Traders, 2014)

이러한 트렌드는 최근 빅토리아주가 이끌고 있다. 사회적기업 5,000여 곳이 밀집한 빅토리아주는 지난해 2월 호주 최초로 '사회적기업 전략(Social Enterprise Strategy)'을 수립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능력 향상, 네트워크 구축, 직원 훈련 지원이 목적으로 총 1,080만 호주달러(90억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조달 계획서(social procurement)' 제출을 의무화해 정부 프로젝트에 필요한 상품과 자원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장려하기도 했다.



-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 창출하게 될 일자리: 2033년까지 54만 개
- 사회적기업의 청년고용 비율: 18.1%
- 교육 사회적기업 중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21.2%



**의욕 잃은
청년에게
희망을**

일자리보다 의욕 저하가 문제다. 최근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급락하고 있다. 2012년 8.1%였지만 지난해 4.6%를 기록했다. 문제는 니트족이다. 취업, 교육이나 직업훈련 과정에 있지 않은 청년의 비율만 10.1%로 약 170만 명에 달한다. 일본 20대 청년 4명 중 1명은 4년에 1번 니트 상태가 되며, 그중 다시 절반은 여러 해 동안 니트로 지낸다.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프리터족의 수도 상당하다. 청년에서 중년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니트족과 프리터족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를 경험하며 근로의욕과 자신감을 잃은 이들이 많은 것이다. 이들은 극도로 위축된 정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조차 꺼린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의 '자립'과 '도전'을 키워드로 여러 지원정책을 진행해왔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니트족 지원기관으로 전국 160곳에 구축해 NGO 등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 또한 니트족, 프리터족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소다테아게넷(www.sodateage.net)'은 히키코모리, 니트족, 프리터족과 같은 사회부적응 청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적기업이다.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등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을 시도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만들고 서비스한다. 직업교육은 물론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개선, 집단외출, 상점가 청소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서비스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 중
니트족
10.1%(170만 명)



<무업사회> 소다테아게넷의 대표이자 설립자인 구도 게이가 쓴 책. 10여 년 동안 만난 수만 명의 무업자에 대한 정성조사와 2,300건의 정량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청년 무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도 게이는 이 외에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다-청년 사회적 창업하기', '대학을 졸업해도 백수가 된다-일하기에 실패한 청년들' 등의 책을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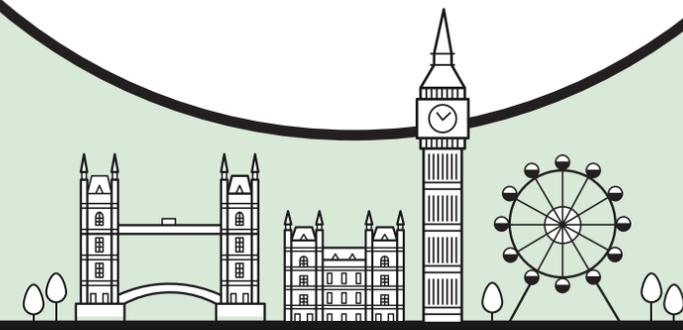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청년고용은 영국에서도 오래도록 커다란 문제였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급격히 증가했고, 외국인 이민자가 늘며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 최근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지표가 나란히 호전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실업인구의 상당수를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도 일자리와 직업교육의 기회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다수의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고, 이후 교육훈련 등을 전혀 받지 못해 경력침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협동조합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5년 기준 7만 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이 약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GDP의 4%, 전체 일자리의 5% 수준이다.

그중 청년문제에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스트리트리그(Street League)'를 꼽을 수 있다. 스트리트리그는 영국에서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 축구(및 기타 스포츠)를 통해 교육 및 고용에서 제외된 16세~24세의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들은 축구는 물론 교실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8주간의 심화과정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총 14개 도시와 38개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운영되는 스트리트리그는 지난해(2016~2017년) 1,553명의 청년이 23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로 연결되는 데 기여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일자리
약 200만 개

사회적경제 영역의
GDP 창출
전체의 5%

스트리트리그가 2017년
일자리를 연결한 청년의 수
1,553명

건강한 잼이 우리가족의 식탁 위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heer up>에서는 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한 기업과 상품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 백수현

향미원을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공술길 65에 위치한 (주)향미원은 자연의 맛과 향기를 담아낸 건강한 식생활을 선도하는 '글로벌농식품기업'을 목표로 한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쌀로 만든 포켓 굴·포도·바나나잼', '퓨어참깨·들깨오일' 등이 있다. 엄격한 국산 농산물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를 통과한 위생적인 최신설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스코식품안전서비스를 통한 위생관리와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식품안전에 필요한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및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 내 취약계층 고용과 복리후생 향상을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미원의 주요 생산제품 '잼' 살펴보기

- 01 건강한 잼**
 - 국산 유기농 쌀과 보리를 발효한 곡물당에 과일 70%를 저온 농축한 무설탕 잼
 - 시중의 올리고당, 천연감미료를 베이스로 한 무설탕 잼과 다른 GMO-Free(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식품), 저당도 잼
- 02 스마트한 잼**
 - 20g 소용량 패킷 포장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파손,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위생, 안전성 확보
 - 기존 빵에 바르는 잼을 넘어 우유, 요거트, 피자 등에 토핑이 가능한 다용도 잼
- 03 프리미엄 잼**
 - 곡물당과 과일의 가열농축공정을 저온농축방식으로 개선하여 맛과 색, 식감을 높인 잼
 - 고품나무 추출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비만 특허조성물이 함유된 프리미엄 잼



최종진단

향미원은 국산 친환경 원료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제조 기술, 노하우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탓으로 국내·외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초청과 MD(상품기획자) 미팅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진흥원은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면심사, 품평회,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해 5월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향미원은 상품진단, 상품개선, 사후관리(입점 및 판촉 연계) 등의 부분에서 지원을 받았다.



제품 개선사항 ▶ 상품의 속성과 연관성 있고 가독성이 좋은 폰트를 사용한 네이밍 개선, BI 디자인 개선, 수출 가능한 패키지 개발로 시장 확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상품 진단 결과 'K-jam(케이잼)'이라는 브랜드를 'i-JAM(아이잼)'으로 개선하여 타켓층을 명확히 했으며, 스틱형 잼에 대한 소구포인트를 살린 '포켓잼(Pocket Jam)'으로 네이밍을 개선했다. 이후 '2017 하이 서울 우수상품 어워드'와 '2017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우수상품공모전'에 참여해 우수상품 인증과 우수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유통채널 진출 지원사업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유통채널 입점 등 사회적기업의 유통망 확대를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TV 홀소핑, 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채널 등 진흥원의 협업기관을 활용하여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제품 개선사항 ▶ 향미원은 지난해 현대백화점에서 열린 '설·추석 사회적기업 제품 특별전'에 참가해 새로운 유통 채널의 진출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7 글로벌스타상품'에 선정돼 해외정책매장(IMSTARTICS) 입점 및 현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e-bay 미국, 호주와 싱가포르 Qoo10, 베트남 LAZADA, 홍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등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Interview (주)향미원 한슬 대표를 만나다

Q 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셨나요?

A 상품 진단을 통해 지적되었던 기존 제품의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 네이밍과 전반적인 제품 콘셉트 및 마케팅 전략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코칭과 MD 상담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브랜드 콘셉트를 고민하고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특징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었으며,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된 제품이 유통기관과 바이어들로부터 상품성을 인정받아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판로가 확대되고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컨설팅 받은 내용을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실 계획이신가요?

A 소비시장을 세분화해 소아청소년을 위한 친환경제품,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편의제품, 다이어트를 위한 이너뷰티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미원만의 차별화된 노하우와 특허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가치를 담은 제품 출시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으로서 향미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사업방향은 무엇인가요?

A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지역 내 농가와 취약계층이 함께 상생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Q 향미원과 비슷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기업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A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진흥원 판로지원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상품경쟁력 강화사업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과 MD 상담회에 꼭 참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재료와 아이디어로 만든 상품이 팔리지 않는 원인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상품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량도 높아짐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임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삼시세끼

하루 한 번 쇼핑을 하기는 쉽지만, 하루 한 번 좋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잠깐, 쇼핑과 선행을 묶어보면 어떨까?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에 대한 소소하지만 리얼한 체험기 'K씨의 하루'를 따라 가장 쉬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보자. 글 | 박웅기, 사진 | 박성희

VISION UP ○ K씨의 하루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미리 K
를
찾아내다



K 씨의 프로필

나이 36.5세
키 180cm
몸무게 68kg(군 전역 당시) / 85kg(현재)
몸상태 마른 비만으로 팔다리만 가는 편
식습관 소식, 배달식, 외식, 폭식, 회식의 반복
관심사 최근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고
건강에 관심이 '부쩍' 높아짐
운동 집이 4층인데 계단이 없음

가격 7,000원

구입 스토어 36.5 은평점
(녹번역 4번출구)

씨튼베이커리

우리밀 100%와 친환경 좋은 재료로 만든 제품(빵, 쿠키, 후레이크, 스택, 케이크 등)을 만들고 있다. 그중 후레이크와 스낵 제품은 국산 유기농 곡물을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더욱 살아있는 건강 간식이다.

T 062-973-1151~2 H www.setonshop.or.kr

아침으로 먹은 채소 후레이크



평소 취향

라면 대신 후레이크를 먹으려고 노력 중이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라면을 자주 먹는데,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 최근 다이어트를 겸해 후레이크를 식사 대용으로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체로 다이어트용 후레이크는 포만감이 적고, 단맛이 떨어져 오히려 끼니를 당겨 먹거나, 다른 간식을 집어먹는 경우가 많았다.

체험 후기

채소 후레이크 종류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았다. 우유에 타 먹었는데 단맛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 실제로 단맛은 '하'에 해당됐다. 하지만 맛은 구수하니 괜찮았다. 곡물과 채소를 적절히 섭취한다는 느낌이 드는 맛이였다. 단맛은 덜하지만 포만감도 괜찮은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가 10,000원

다솜도시락 전화 주문 (단체구입)

다솜도시락

세미나, 모임, 행사, 직장인 점심도시락 등 단체도시락 전문 배달 사회적기업이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식자재를 대량구매하지 않고 정확히 다음 날 사용할 식자재만 구매한다. 수익의 일부는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 사랑의 도시락 전달에 적극 활용한다.

☎ 02-324-2607 🌐 dasomislove.com



**점심으로 먹은
 다솜도시락**

➡ **평소 취향**

채소보다는 고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초등학생 입맛'을 가지고 있다. 육류라면 뭐든 맛있게 먹는 편이나, 식감이 질긴 고기는 잘 먹지 못한다. 굳이 취향을 자세히 돌아보자면 자극적인 조미료의 맛에 특별한 거부감은 없으나 본래 식재료의 맛과 향이 잘 살아있는 요리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배달 도시락은 아근할 때 돈까스 도시락을 주로 먹었다.

➡ **체험 후기**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도시락 제품은 처음 먹어봤다. 일반 도시락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밥이나 반찬의 맛은 마치 정갈한 식사다운 느낌이 들었다. 조미료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는 함께 먹은 동료들의 공통된 후기였다. 특히 채소 등을 씹었을 때의 식감은 상당히 싱싱해 배달 도시락과 큰 차이가 느껴졌다.

가 4,300원 (카푸치노)

아름다운커피 경북공점 (경북공역 6번출구)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 커피는 물론 공정무역 초콜릿, 코코아, 차(tea), 건과류 등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경북공점, 단국대점, 세정점, 창덕공점 등 직영카페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는 물론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 02-743-1004 🌐 www.beautifulcoffee.org

**식후엔 가볍게
 아름다운커피**



➡ **평소 취향**

커피는 아침에 출근한 직후, 혹은 점심식사 직후에 주로 마신다. 아침엔 사무실에서 드립커피를 마시는데 보통은 사무실 카페 주변에서 구입한 것. 점심식사 후에는 주로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 졸릴 때만 마시는 편이다.

➡ **체험 후기**

일단 지하철역과 바로 접해 있어 방문하기 편하다.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맛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 곳이라 그런지 카페 분위기도 조용하고 전반적으로 매너가 느껴진다. 아이돌인 뉴이스트 아론과 렌이 테이블에 직접 싸인한 좌석도 있대니 신기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더 의미 있게 마시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

건강한 이 낳은 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동물복지달걀’을 아시나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자재인 달걀은 다양한 조리방법만큼이나 많은 브랜드와 인증표시를 갖고 있다. 그중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정신을 담은 ‘동물복지 달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 | 백수현

‘동물복지달걀’이란?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명상가, 평화운동가, 시인이기도 한 틱낫한 스님의 저서 <화>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자유 없이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을 먹을 때 우리

는 그 화와 좌절을 먹는 것이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얼마 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살충제 달걀 파동 등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닭들이 ‘사육환경’이다.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산란계장과 밀집사육 등의 환경으로 인해 닭은 물론 이런 닭들이 낳은 달걀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개선한 것이 ‘동물복지 인증 달걀(동물복지달걀)’이다. 닭을 포함한 소, 돼지, 오리 등 가축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된 농가에 ‘동물복지 인증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1994년 영국에서 시작돼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2년 도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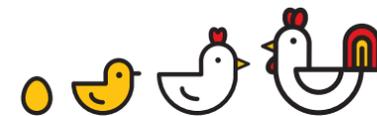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는 축산농가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폐쇄형 케이지가 아닌 모든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어야 하며 안락하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산란 장소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또 높은 곳을 좋아하는 닭의 습성을 존중해 닭 한 마리당 최소 15cm 이상의 햇대를 설치해줘야 하며 닭이 모래목욕을 할 수 있게 바닥의 3분의 1이상을 깨끗하고 뽀송한 깔짚으로 덮어줘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도 있다. 우선 닭들이 서로를 찌지 못하도록 강제로 부리를 잘라내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사육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 닭을 굶기거나 빛을 차단해 강제로 털갈이를 시켜도 안 되며 포

유류 또는 조류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줘서도 안 된다.



**동물복지달걀에도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동물복지달걀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일방적인 이익이 아닌 쌍방향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먹을거리 제품을 찾는 게 당연지사. 친환경 재료 사용·사회적약자 일거리 창출 등으로 우리 식탁을 풍성히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살펴본다.



- 경기도 의왕시 월암길 41 (월암동) 의왕선물
- 0505-771-5775
- www.cookie-line.com

**쿠키
라인**

빵, 쿠키, 케이크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쿠키라인은 지역기업,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순환경계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특히 친환경계랑과 국내산 순쌀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76 위캔센터
- 031-969-3533
- www.wecanshop.co.kr

**위캔
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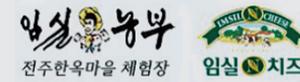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인 '위캔'에서 생산하는 '위캔쿠키'는 장애인들도 직업을 갖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 정직하고 건강한 쿠키를 표방하는 위캔쿠키는 건강한 달걀과 우리밀, 100% 원유 버터, 유기농 설탕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학첨가물과 팽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쿠키 외에도 마들렌, 머핀 등도 판매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 064-794-6277
- peacevil.ejeju.net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달걀'과 함께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햄'과 '소시지'다. 정직한 수제 햄, 수제 소시지를 생산하며 안전한 먹거리의 가치와 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평화의 마을은 '제주맘'이라는 브랜드로 소시지, 햄, 스테이크 등을 생산하고 있다.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12(풍남동 1가)
- 063-284-4849
- www.imsilnongbu.co.kr

**임실치즈농협
& 임실농부(주)**

1964년 벨기에에서 건너와 임실성당에 부임한 지정환(디디에 세스테벤스) 신부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자활의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산양을 보급하고 치즈사업을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 임실치즈 농협이 됐다. 최근에는 요거트, 치즈, 초코파이 등의 생산뿐만 아니라 임실치즈 만들기, 수제임실피자 만들기, 치즈와 초코 풍류체험, 수제 치즈핫바,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 등이 이뤄지는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간 수천 만 원 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8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 설명회' 개최



진흥원은 1월 30일(화) '2018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사회적기업 창업과 인증 지원, 판로·컨설팅 지원,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비롯한 진흥원의 주요 사업 일정과 지원 절차 등이 소개됐다.

오광성 진흥원장은 "올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며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현대백화점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설 특별전 개최



진흥원은 설 연휴를 맞이하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현대백화점 본점 등 총 8개 점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설 특별전을 개최했다. 2월 5일(월)부터 15일(목)까지 진행된 특별전은 우수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24개 기업의 48개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며 '제 값을 치루고, 제 값을 받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인식을 전달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상품 특별관 조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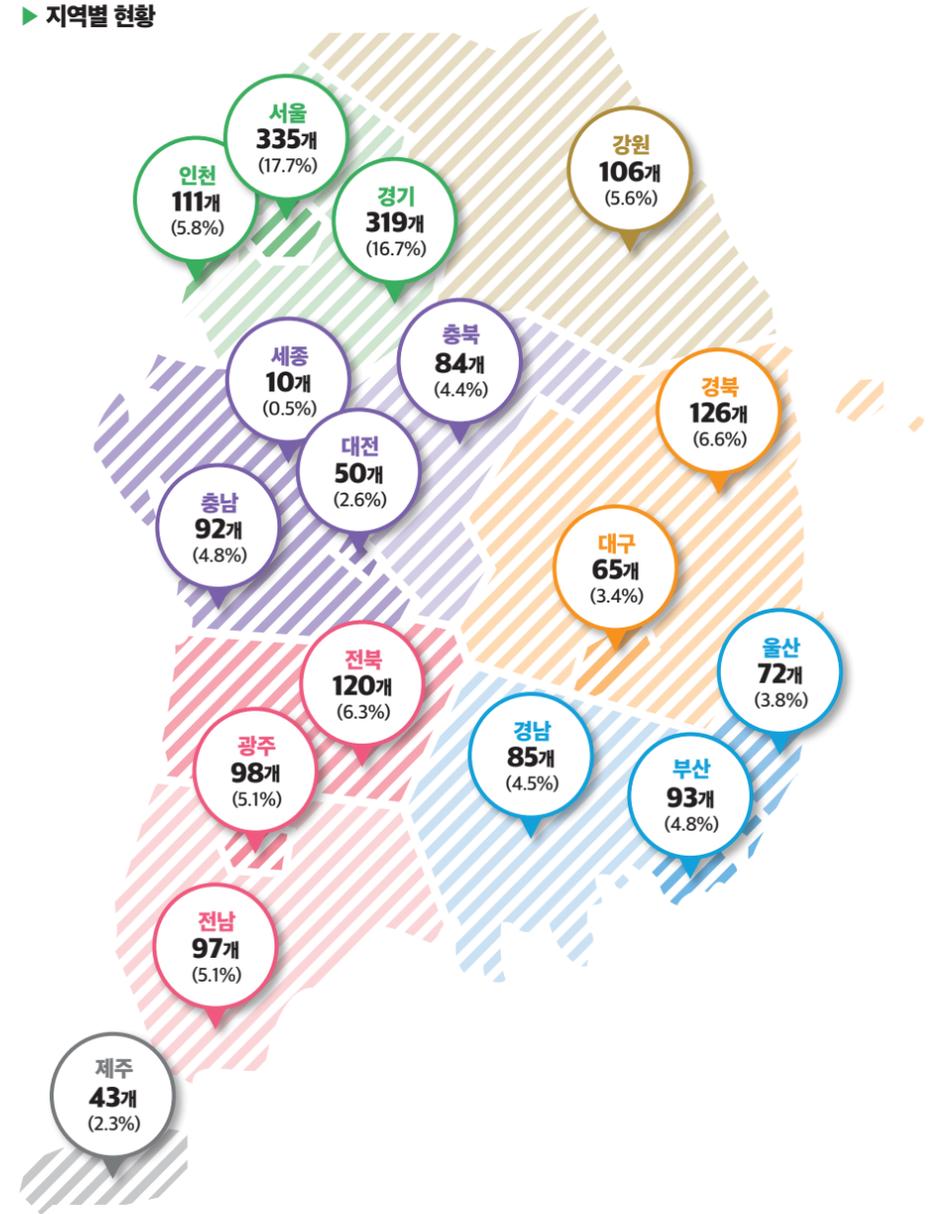
2018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이 성황리에 종료된 가운데 진흥원과 강원도가 협업하여 1월 30일(화)부터 3월 25일(일)까지 강릉 올림픽 페스티벌 파크에 '사회적경제상품관'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전통주와 곤드레와 같은 식품부터 샴푸, 세제 같은 생필품까지의 600여 종류의 사회적경제 상품을 판매 홍보하며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상품의 우수함을 널리 알렸다.



새로운 사회적기업 35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1,906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실시해 케이앤아츠, 툴뮤직 등 35개 기관을 신규로 인증했다고 3월 8일(목)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1,906개로 늘었다. 올해 인증은 예술·농촌유학·장애인 이동편의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역별 현황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1,304개 (68.4%)	119개 (6.2%)	94개 (4.9%)	179개 (9.5%)	210개 (11.0%)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설명회 개최

진흥원은 신용보증기금과 3월 5일(월) 경기 지역으로 시작으로 3월 16일(금) 충청 지역까지,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강원·제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제도의 이해 고취와 현장 상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설명회는 사회적기업 나눔보증·협동조합 희망보증·마을기업 두레보증·자활기업 초록보증 및 각 보증별 보증한도·보증기간·평가기준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2022년까지 총 5,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지역별 설명회 안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모두 보증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제도를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용보증기금 현장 상담회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 개최일정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정: 2018. 3. 5(월) - 3. 16(금) (지역별 순차)

주최: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신용보증기금 영업본부 회의실 (지역 내 회의실)
대상: 자금우요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일정	주최	문의
경기	3.5(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안계동 115-1번지 신원보증기금 3층 301호(신원보증기금)	031-226-1528
인천	3.6(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도동 1 신원보증기금(송도) 3층 신원보증기금 회의실	032-400-6108
부산	3.7(수)	부산시 남구 문현동로 40 부산국제컨벤션 14층 부산신원보증기금 회의실	051-478-4000
대구	3.7(수)	대구광역시 동구 칠천동 1 신원보증기금(대구) 3층 신원보증기금 회의실	053-430-4071
광주	3.7(수)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37 광주 신원보증기금 회의실	02-2141-3264
서울	3.9(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로 122 신원보증기금(서울) 마포사옥 19층 1901호	02-2142-2141 / 2142-1400
대전	3.12(월)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5 신원보증기금(대전) 신원보증기금 회의실	042-710-4216
충청	3.15(목)	대전광역시 서구 둔촌동 4 신원보증기금(충청) 신원보증기금 회의실	042-539-5008
포항	3.16(금)	경북광역시 동구 개령로 214 신원보증기금(포항) 신원보증기금 회의실	054-607-9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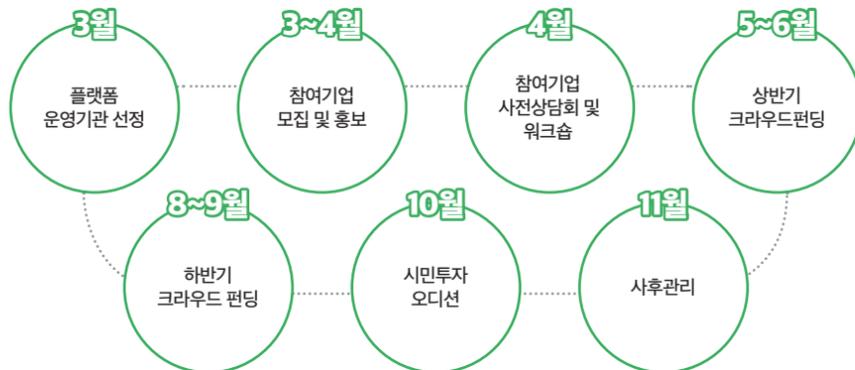
* 3.7(수) 부산광역시 지역은 15시 30분, 대구광역시 지역은 15시 30분 시작 예정
** 울산 지역은 3월 중 주기로 설명회 개최 예정

신원보증기금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KSEI 신용보증기금

‘2018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실시

온라인 금융플랫폼(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유치 지원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은 ‘2018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한다. 크라우드펀딩에 앞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역량을 제고를 위한 사전 상담회와 참여기업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며 크라우드펀딩은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될 계획이다. 두 차례의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리워드형)’, ‘증권형’, ‘대출형’으로 진행되며, 오마이컴퍼니 및 B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5월 31일까지).

▶ 추진일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추진일정 공개

부처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추진일정이 공개됐다.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부처의 특색에 맞는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받고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부처명	지정누계	신규지정 (2017)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81	2	농촌 체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등 농가소득과 농촌 복지증진
환경부	88	4	도시텃밭, 재활용 등 청소 등 지속가능한환경 복지
보건복지부	31	5	청소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균등한 사회참여와 국민복지
여성가족부	34	8	혼례문화 교육 등 건전한 가족문화 확대
문화재청	36	3	문화유산 체험 등 문화재 활용,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산림청	74	22	산림생태휴양사업 등 사람과 숲의 상생공존
교육부	22	-	방과후학교, 언어치료
통일부	17	2	의류 제조, 예술 공연 등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국토교통부	-	-	도시재생
고용노동부	214	154	참여 자격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10개 부처	597	200	평가 결과 : 성공

▶ 부처별 추진일정

농림축산 식품부	환경부	보건 복지부	여성 가족부	문화 재청	산림청	교육부	통일부	국토 교통부	고용 노동부
10월	5월	5월	9월	5월	3월, 8월	미정	3월, 8월	3월, 8월	연중수시 3월, 6월, 11월

‘2018년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모집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은 ‘2018년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이하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층에 소셜벤처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수한 소셜벤처 활동 계획을 보유한 대학 동아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국 20개 동아리를 선발하여 동아리 당 150만 원 상당의 활동 지원금, 역량강화 워크숍 및 사회적기업가 캠프 연계 등 소셜벤처에 대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2018년 3월 15일(목)부터 4월 11일(수) 오후 여섯시까지 이메일 접수(svc@ikose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하거나 소셜벤처 창업을 계획 중인 전국의 대학 동아리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

<36.5> 지면을 채워 준 인터뷰이·소비자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하는 응원 및 당부의 메시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글 | 편집실

유통 플랫폼 강화에 힘을 실어주세요.



01 모어덴 강동현 과장

별써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지 10주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일반에 확대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 또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고요. 저희 또한 공공기관·기업체에서 단체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커백션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홍보 방법은 '아름다운 스토리'에만 집중된 것 같아요. 제품 자체만으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유통 플랫폼을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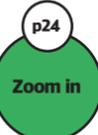
조금 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지원을 해주세요.



02 동네방네협동조합 조한솔 대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창업한 청년들은 돈을 벌려고 창업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보다는 지역성과 사회성을 살핀 후 필요한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함께 실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의 창업에서도 일반 창업의 잣대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성패를 가늠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습니다. 평가에서 비즈니스보다 사회적가치에 더 무게를 두면 어떨까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요 컨설팅 수준이 청년들에게 너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해 영수증 처리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회계 컨설팅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안타깝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은 더 쉽고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생태계의 구심점이 되어주시를.



03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최재호 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파트너십을 진행하면서, 진흥원 직원 분들의 역량 또한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고요. 사회적경제생태계가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계 및 매칭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보를 발 빠르게 수집해 널리 알려줬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큰 경제영역으로 자리 잡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온라인 업데이트에 신경써주세요!



04 K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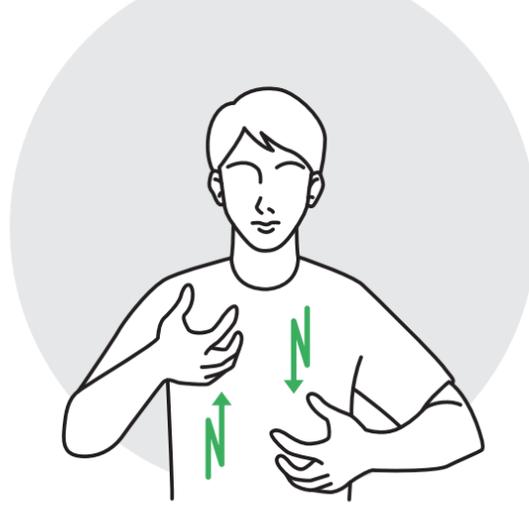
저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이트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 아쉽습니다. <e-store 36.5> 홈페이지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 정보가 부정확하여 고생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방문 전에 꼭 문의전화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사회적기업 제품을 이용할 때 이런 불편을 느낀다면 제품 판매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 1 오른 손바닥으로 주먹을 쥐어 왼 팔을 가볍게 쓸어내린다.
- 2 두 주먹을 쥐고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린다.

반갑습니다



- 1 검지를 편 양 손을 가슴 앞에서 벌렸다 서로 마주 보도록 가까이 댄다.
- 2 약간 구부린 양손을 가슴에서 엇갈리게 위, 아래로 두 번 흔든다.

감사합니다



- 1 오른손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다.
- 2 오른손의 옆면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두 번 정도 두드린다.

미안합니다



- 1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의 끝을 붙여 이마의 가운데를 한번 부딪친다.
- 2 그 다음 손가락을 펴면서 아래로 내린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손으로 나누는 따뜻한 소통

‘수화(手話)’란 청각·언어 장애인이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전달방법으로서, ‘수어(手語)’라고도 한다. 평소 간단한 수화를 익히면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글 | 백수현

‘수화’를 할 때 기억해주세요!

- 01 다양한 표정은 필수예요!
거울 속 나의 어정쩡한 표정! 그동안 얼마나 근엄하게 살아왔는지... 손짓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수화를 할 때는 해당 언어를 나타내는 다양하고 살아있는 표정이 필수입니다.
- 02 관용적 수화도 있어요!
수화도 언어이기 때문에 고유의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농식 수화(관용수화)’라고 하는데 함축된 표현이 많습니다. 얼굴표정만으로 표현되는 수화도 포함됩니다.
- 03 나라마다 수화도 달라요!
수화는 세계 공통어가 아닙니다. 나라마다 각각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언어가 있듯이 수화 역시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한 수화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 특유의 사투리도 존재합니다.

수화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열린책장

☎ 042-719-1004

🌐 www.facebook.com/wingsbooks

국내 장애인 중 70%를 차지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문화컨텐츠를 만들자는 취지로 강화평 대표가 지난 2013년 설립한 사회적기업. 이후 수어영상도서 출판, 수화TV채널 ‘SON TV’ 운영, 웹툰 및 이모티콘 제작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화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이 이모티콘은 수화를 사랑하는 여자라는 뜻의 ‘수애’란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수화 동작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독자 BOX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더욱 알찬 <36.5>을 만드는 데 소중한 토대가 됩니다. <36.5>을 읽은 후의 느낌과 생각을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36.5'를 읽고'라는 말머리와 함께 아래 문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모두 답하셔도 좋고, 몇 가지 문항만 답하셔도 좋습니다.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kosea@ikosea.or.kr

01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흥미로운 점을 말씀해주세요.

02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Always with you!에 소개하고 싶은 사회적기업이 있으신가요?

03 <K씨의 하루>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간략한 본인 소개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04 <36.5>가 다뤄졌으면 하는 소식이나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청년협동조합 창업팀모집

연배 협동조합과 함께 가프아~!

모집기간

2018.03.15(목) ~ 2018.04.19(목) 18:00

인형자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는 청년 창업팀

* 최소 2인 이상, 만 19세~39세 이하 인자가 50% 이상 구성

* 사업자등록 기준 1년 미만 협동조합 참여 가능

참가팀혜택

창업팀 상금 총 9,700만원	시드머니 팀당 650만원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지원
맞춤형 사전교육	사업화 인큐베이팅 (선배 협동조합의 전담 멘토)	사업 인프라 · 네트워크 연계 및 법인설립

인형방법

온라인 접수 www.ideanumso.com/coop

연배 인큐베이터 (협력기관)

#외식 #IT #SW개발 #교육 #문화예술 #메이커스 #제조 #MRO #웹개발 #ICT #돌봄 #보육 #도시재생 #일반창업 #기타사업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사회적기업진흥지원센터	컴비즈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WEZON	péto
타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크리리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꽃밭지역과소셜비즈 LOCAL & SOCIAL BIZ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Incheon Metropolitan City Social Economy Support Center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T. 031-697-7731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문 확인 (<http://www.socialenterprise.or.kr>)

36.5

사회적기업 매거진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8층

T. 031-697-7700 F. 031-697-7853 H.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97 72465 870009
ISSN 2465-8707